

한국투자증권, PB·IB·디지털 결합… 퇴직연금 1위 도전

개인 자산관리·법인 영업망 연결
MTS 개편… 연금자산 통합 관리
자산 풀림 점검 등 장기 운용 지원

“법인 네트워크나 IB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고 IB 영업력에서도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기업금융과 개인 자산 관리에서 쌓은 역량을 앞세워 증권업계 퇴직연금 1위에 도전한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전무)은 6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연금 MTS 서비스와 연금 플랫폼 전략’ 설명회에서 이 같은 경쟁력을 강조했다. 프라이빗뱅크(PB)의 자산관리 경험과 투자은행(IB)의 법인 영업망에 디지털 서비스를 결합해 기업과 개인을 함께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김 전무는 퇴직연금 시장이 이미 600조원을 넘어섰고 향후 3년 내 1000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사업 순위는 증권업계 3위, 전체 사업자 가운데 10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올해 연금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며 사업 확대를 준비해왔다.

핵심은 PB와 IB의 연결이다. 개인 고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연금 MTS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객의 금융상품 투자와 자산 배분을 관리해온 PB의 경험을 연금 운용에 활용하고, IB의 법인 네트워크를 기업의 퇴직연금 영업과 연계한다. 김 전무는 연금이 개인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법인도 상대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두 부분의 강점을 함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개편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은 고객이 자신의 연금을 쉽게 파악하고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윤희 디지털연금부 팀장은 “이번에는

단순히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서비스를 바라보는 그 기준 자체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려 한다”라고 말했다.

앱 메인 화면에는 국내·해외 주식과 나란히 독립된 ‘연금 HOME’을 배치해 제도도와 상품, 투자·세금 정보를 모았다. ‘나의 총 연금자산’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 보유한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연금저축 자산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계좌 구분 없이 보유 상품을 유형별로 묶어 총자산과 수익률, 투자 비중을 보여

줘 전체 자산 배분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상품 상세 화면에서는 매수·매도로 바로 연결되며, ETF 체결 기준 잔고와 현금 변동도 장중 확인할 수 있다. 계좌별로는 올해 납입액과 추가 입금 가능액, 위험자산 투자 비중 등을 보여준다. 납입 중인 고객에게는 추가 입금 정보를, 연금 수령이 가능한 고객에게는 수령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계좌 개설 이후 자산을 방치하지 않도록 ‘할 일’ 안내도 강화했다. 입금하지 않은 계좌에는 입금을 안내하고, 입금 후 투자하지 않은 자산에는 운용 방법을 알려준다. 황 팀장은 고객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좌를 만든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당장 실행할 일을 하나씩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편에는 개인이 직접 연금을 운용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국투자증권 발표 자료상 2025년 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친 적립금은 699조원이며, 개인이 운용하는 DC·IRP·개인연금 비중은 67.3%다. 상품 선택과 자산 배분 등 고객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 넓어진 만큼 이를 지원하는 서

비스도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고객과의 관계가 장기간 이어진다는 점도 연금 사업에 힘을 싣는 배경이다. 한국투자증권의 DC 가입자 평균 연령은 36세로 10년 전보다 4세 낮아졌고, 회사가 제시한 이탈률은 1.8%다. 최 본부장은 “연금 고객은 36세의 한투와 만나서 최소한 65세까지 적어도 30년의 기간을 저희 한투 연금과 함께 자산을 운용하고 키워나가고 또 노후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물자산 제도 시행 이후 한국투자증권으로 유입된 연금자산은 2조원을 넘어섰다. 최 본부장은 유입되는 연금 이전 자금의 약 70~80%가 은행권에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리서치·상품·연금 자산 배분 역량을 결합한 전문가 모델포트폴리오(MP)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보유 상품 시장 분석과 은퇴 후 맞춤형 인출 설계 등을 추진하며 관리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디지털 서비스와 영업점의 대면 상담을 병행하고 법인 채널과의 협업도 강화해 연금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韓 가상자산 경제 604조… 동아시아 ‘최대’ “AI 수혜주·소비주 양극화 전략 바꿀 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성장
거래소 활동 16% 늘고 개인 투자 활발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가 동아시아 최대 수준인 4491억달러(약 604조원)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체이널리시스는 ‘동아시아 가상자산 도입 보고서(East Asia Crypto Adoption Report)’를 통해 한국 가상자산 경제 규모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성장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같은 기간 일본(2283억달러), 홍콩(1922억달러), 중국(1763억달러), 대만(1404억달러)보다 큰 규모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활동은 이 기간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고, 거래소 관련 자금 흐름은 511억달러 늘었다고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한국시



체이널리시스는 ‘동아시아 가상자산 도입 보고서’를 통해 한국 가상자산 경제 규모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성장했다고 밝혔다. /해GPT로 생성한 이미지

장이 성장했으며 주요 금융기관은 아직 본격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주요 원화 가상자산 중 주요 테마형 자산 거래에서 월드코인(WLD) 등 인공지능(AI) 관련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홍콩은 기관 대상 플랫폼을 통한 자금 유입이 전체 가상자산 서비스 유

입액의 16%를 차지했다.

일본에서는 탈중앙화거래소(DEX)가 전체 가상자산 서비스 시장의 34.5%에 달했다.

중국에서는 전체 가상자산 경제의 59.1%가 개인 간 자금 흐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서학개미, 반도체 레버리지 팔고 국채·배당주로 눈 돌렸다

해외주식 Click

미국 주식 매수세 두 달 연속 둔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세가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둔화했다. 반도체 개별주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공격적인 투자 상품에서는 자금을 빼는 반면, 단기 미국 국채와 배당주 등으로 투자처를 분산하는 모습이다. 고금리 환경에서 시세차익보다 이자와 배당을 통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10억128만달러(약 1조3653억원)에 그쳤다. 8월 19억6234만달러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 7월 46억4241만달러와 비교하면 78.4% 감소했다.

반도체 관련 상품에서는 투자심리 변화가 더욱 뚜렷했다. 반도체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SOXL)는 지난달 10억8270만달러 순매도됐다. 지난 8월 12억3367만달러 순매도에 이어 두 달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한 것

이다.

반도체 개별 종목에서도 매도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미국주식에탁증서(ADR)를 1억8849만달러 순매도했다.

반대로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에는 자금이 유입됐다. 반도체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역으로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배 ETF’(SOXS)는 지난달 1억3883만달러 순매수됐다. 8월 순매수액 3571만달러와 비교하면 약 3.9배 늘어난 수준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BofA, AI 투자 쏠림에 경고

인공지능(AI) 수혜주를 사고 경기소비 관련주를 파는 투자로 ‘쉬운 돈’을 버는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비타 서브라마니안이 이끄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전략가들은 5일(현지 시간) 고객 메모에서 “AI 자본지출(CapEx) 수혜주를 사고 소비 테마를 파는 데서 얻는 초과수익은 앞으로 더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서브라마니안은 “미국 소비자의 소비 욕구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하고, 자본지출의 강세는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 선별적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풍부한 AI 투자와 화이트칼라 일자리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이라는 두 흐름이 이미 투자자들의 포지션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BofA 분석에 따르면 액티브 펀드들의 포지션은 IT 서비스, 소비자 금융, 소프트웨어 등 ‘AI 피해 업종’에서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깝다.

반면 경기소비재 대비 산업재 포지션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펀드매니저들이 가장 큰 폭으로 비중을 늘린 업종은 전자장비·기기·부품이다.

서브라마니안은 AI로 고임금 일자리가 위협받으면서 화이트칼라 전문직의 소비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실제로 지난 12개월간 S&P 500 필수소비재 지수는 4.6% 오른 반면 경기소비재 지수는 3.3% 떨어졌다. 롤루레몬과 나이키 주가는 1년간 각각 약 50% 하락했다.

이번 진단은 BofA가 1년 가까이 유지해온 투자 논리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BofA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연간 전망에서 “소비지출보다 자본지출을 선호한다”며 AI 관련 지출이 시장의 ‘평형수’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김아영 기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에 노조 반발

“예산·조직 통제, 감독 독립성 훼손”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하는 대신 경영관리와 감독업무 쇄신을 요구한 가운데 금감원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 반대하고 나섰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예산·조직 통제와 일률적인 경영평가가 강화되면 금융감독이 정부 정책에 좌우되고 새로운 금융위험에 대응할 역량도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사실상 직접 적용하는 수준의 금감원 혁신지침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의 기본 방향은 금감원의 감독업무 자율성을 고려하되,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운위는 지난 1월 29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유보하면서 기타 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허정윤 기자